“민선 8기 광주·전남 로드맵 국정과제와 맞춰 추진을”

새정부·민선 8기 핵심과제 반영한 지역 상생협력 필수
광주전남연구원, 지역산업·지방자치 등 분야별 대응 과제 제시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전 로드맵이 실현되기 위해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발 맞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비대면 경제 등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과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주변 여건을 고려한 산업·자치·도시·농축수산·문화예술관광 등 분야별 대응 과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지난 31일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연구’에서 ‘민선 8기 광주·전남의 지역정책 방향과 과제’를 특집 주제로, 민선 8기 시·도정의 주요 정책 및 분야별 공약을 집중 분석하고 광주·전남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제시한 ‘광주,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라는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내놨다.

연구원은 우선 지역산업정책 분야 추진과제로 광주에는 ▲AI반도체산업 육성 ▲지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유니콘 기업의 전략적 육성 등을, 전남에는 ▲신안 해상풍력 사업반영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우주발사체와 미래비행체 육성 ▲면역치료·백신 국가거점 육성 등을 독려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산·학·연·관의 적극적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핵심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구원은 또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및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광주·전남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구원측은 “민선 8기가 맞이한 주변 여건은 저성장과 고물가, 기후위기와 재난 등 신사회 위험이 확산하는 등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정부 산업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할 중요 시점”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 및 지역발전 분야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가장 먼저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또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등 광주·전남이 집중하고 있는 초광역협력사업과 관련해선 “오는 4일부터 적용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원은 문화예술·관광 분야 대응과제와 관련해선 광주에는 시민 문화향유율 제고를 위한 소규모·특화 문화기반시설 구축과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활용한 매머드급 복합엔터테인먼트형 관광명소 개발 등을 제시했으며, 전남에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초광역권 관광개발 추진, 해양자원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세계화를 위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 밖에도 농·축·수산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전남도와 관련해선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지역 농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으로, 40대 이하 청년농 인구의 감소를 막기 위한 ‘전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 및 농촌사회 안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식품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남도는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면적과 생산량, 공항과 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수출단지를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방사선폐기물인력개발원 건립 등
전남 비전·공약위원회
민선 8기 밑그림 내놔

민선 8기 전남 비전·공약위원회(이하 비전·공약위)가 방사선폐기물기술 인력개발원 건립,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국립 농산업 빅데이터센터, 동부~중부~서부권 연결도로 개설, 국제학교 설립 등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도심 속 명품하천 조성, 100세 건강 체육활동 지원 등도 전남 도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들 정책 과제는 민선 8기 김영록 전남지사의 공약에는 없으나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다.

비전·공약위는 지난 28일 전남도청에서 도민보고회를 열어 미래성장동력과 행복시책 등을 담은 민선 8기 전남도 정책 방향과 8대 분야 20개 전략과제 아래 100대 공약·60대 정책과제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남도에 전달했다.

전남도는 미래성장동력산업과 도민 행복시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서를 수립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께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공약은 ▲반도체 산업 광주·전남 공동육성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공동 개최 ▲지리산·섬진강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공약) 등이다. 또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호남선 고속철도(KTX) 2단계 조기 준공 ▲국립 전남의과대학 유치 등도 주요 공약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태풍 ‘송다’ 피해 없도록 최선을”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1일 오후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제5호 태풍 ‘송다’의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에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태풍 ‘송다’의 강도나 규모가 약하다 하더라도 긴장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 섬 해설 ‘섬코디네이터’ 활약 돋보여

맞춤형 교육 강화·BI 개발
전남도, 관광객 신뢰 높이기로

전남도내 섬 주민 여행 파트너 ‘섬코디네이터’들이 섬을 찾는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잘 모르는 섬의 가치를 알리고, 명소를 안내해주면서 짧은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섬코디네이터는 2년에 걸쳐 기본교육 이수 및 심화교육 수료 후 자격면접을 통과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수여한다. 올해는 16개 섬 69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통합 모둠교육을 진행했으며, 하반기 실무 능력을 위한 섬별 현장 방문교육과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 가고 싶은 섬 14개 섬에 41명이 활동 중이다.

기적의 순례길로 섬을 가꾸는 신안 기점소악도를 섬코디네이터와 함께 여행한 목포의 한 관광객은 “아는 사람이 없는 섬이었지만, 섬코디네이터가 옆에 있어 든든했고 무엇보다 섬에 대해 몰랐던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완도 여서도를 방문한 무안의 관광객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던 섬 이야기를 섬 주민(섬코디네이터)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 더욱 생생했고 즐거웠다”고 밝혔다.

가고 싶은 섬 무안 탄도의 이종근 섬코디네이터는 “섬 방문객이 섬코디네이터의 안내로 섬에 더 관심을 갖고 흥미로워 한다”며 “안심하고 여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뿌듯하다”고 전했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섬코디네이터의 활동 덕분에 전남 섬의 매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섬을 방문하는 이들이 안심하고 섬 여행을 즐기도록, 믿음이 가는 섬코디네이터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광주시, 6건 선정

광주 주력산업 중 하나인 미래모빌리티를 기반으로 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양자암호통신을 이용해 감염병 대응 톡을 개발한 공무원들의 행정 아이디어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올해는 개인 부문과 팀 부문으로 구분해 우수사례를 각 3건씩 최종 선발했다. 직원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선정을 위해 사전에 온라인직원투표와 온라인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철저한 실적검증과 예선심사를 거쳐 ‘제2차 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우대등급을 결정했다.

선발된 개인 부문 우수사례는 ▲미래모빌리티 신(新)경제 광주 플랫폼 구축(최우수·자동차산업과 송윤태) ▲농로가 사라져 10년간 경작을 못했던 한 맺힌 농민의 숙원을 적극행정으로 달래주다(우수·상수도사업본부 박성위) ▲문화도시 광주, 전국 최초 문화예술인 특화 안심보험 가입(장려·문화도시정책관 박주용) 등 총 3건이다.

팀 부문 우수사례는 ▲국내 최초 양자암호통신을 이용한 광주시 감염병대응톡(GIDR Talk) 개발·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효과를 극대화하다(최우수·보건환경연구원 김민지, 김태순, 박정욱, 미래산업정책과 이정선)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개별심의 해결방안 제시(우수·도시경관과 기윤, 변성훈, 안태명, 문병옥) ▲아빠처럼 든든하고 엄마품처럼 안전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장려·출산보육과 나건웅, 임영희, 정종환, 문귀현) 등 총 3건이 선발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남개발공사 전국 1위

전남개발공사가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와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전남개발공사는 31일 “김철신 사장 주도로 미래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더 청정한, 더 행복한, 더 투명한 ESG경영전략을 수립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7년 연속 흑자경영으로 우수한 재무성과 달성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지역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전남행복동행펀드 운영,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제도 운영 등 다양한 성과도 긍정적인 요소였다.

이번 행안부의 경영평가에서는 ESG 경영지표의 배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대응 노력을 더 반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